



東·亞·文·化·54

雷斧考 補遺

李鮮馥

1. 머리말
2. 考古資料에 대한 傳統的 認識
3. 雷斧 관련 기록
4. 淋疾 관련 기록
5. 맺음말

雷斧考 補遺

李鮮馥*

1. 머리말

필자는 近代學文으로서의 考古學이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先史時代의 유물과 유적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위 雷斧라 불리던 돌도끼를 비롯한 石器는 朝鮮 지식인들에게 관심거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 나아가 그러한 관심은 당대의 世界觀과 宇宙觀 및 醫學的 知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10여 년 전에 이와 관련된 拙稿를 마지막으로 발표하였지만,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틈틈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다지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본 주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소량이나마 추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비록 사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대로 死藏시키느니 보다 소개하는 것이 考古學 前史의 구성에 한층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에 소개하는 바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1) 拙稿. 2001. 雷斧考. 한국고고학보 44. 151-188쪽; 2002. “Thunder-Axes” and the Traditional View of Stone Tools in Korea.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4(1/4):293-306; 2003. 雷斧와 世宗의 淋疾에 대하여. 역사학보 88. 59-81쪽; 2005. 벼락도끼와 돌도끼 - 고고자료에 대한 전통적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자료 소개에서는 판본에 따른 내용의 차이, 原文 判讀 혹은 판권 등의 몇몇 문제를 감안해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인터넷에 공개한 原文을 그대로 신기로 하였다. 즉, 여기 소개하는 자료는 〈한국고전종합DB〉,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및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자료 중 상당수는 번역문도 공개되었고 번역되지 않았더라도 비교적 쉽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락만을 나누고 原文을 그대로 옮겼다. 자료 소개에 앞서, 考古資料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 대해 필자가 파악한 바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考古資料에 대한 傳統的 認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기록은 高麗 후기의 인물인 李奎報(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에 실린 〈南行月日記〉 앞에 실린 고인들에 대한 한 토막의 언급일 것이다.²⁾ 고인들을 옛 聖人의 奇蹟이라 여긴다는 이 글 이후 과거의 文物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과거의 遺蹟과 遺物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秋史 金正喜가 쓴 〈新羅眞興王陵考〉 첫머리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니, 19세기가 되면 심지어 慶州의 거대한 古墳들이 新羅 무덤이라는 사실마저 기억에서 사라진 형편이었다.³⁾

2) (전략) 明日 將向金馬郡 求所謂支石者 觀之 支石者 俗傳古聖人所支 果有奇迹之異常者 (후략)

3) 太宗武烈王陵上有四大陵 邑人以爲造山也 凡所謂造山皆陵也 鳳凰臺東西造山最多 年前一山 顏圯 其中空洞黝黑深可丈餘 皆以石築之蓋 舊時王陵 非造山也 此造山之爲陵一證也 (후략)

史史는 近代 이전의 지식인으로서는 考古學에 가장 가까운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新羅眞興王陵考〉나 眞興王巡狩碑의 발견과 판독 같이 잘 알려진 활동 이외에도, 그러한 면모는 〈石罽詩〉라는 長文의 詩에서 드러난다. 이 글은 北靑에서 귀양을 살았을 때 부근의 新昌里에 있는 土城(新昌土城)에서 우연히 찾은 石器를 두고 그 내력을 시 형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여기서 발견한 石器는 《史記》 등의 中國 文獻에서 언급하고 있는 肅愼의 楛矢일 것이며, 따라서 이곳이 바로 肅愼의 故地라는 것이다.⁴⁾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그의 이러한 활동은 맥이 이어지지 못했다.

史史의 활동을 제외하면, 考古資料와 관련한 기록은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으려니와 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우리 古文獻에서 찾을 수 있는 관련 기록은 雷斧라고 불리던 돌도끼 등의 石器를 지칭하는 짧은 글들이 거의 전부로서, 그 기원과 성격 혹은 정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近代學問으로서 考古學이 자리 잡기 전까지, 과거의 유물과 유적은 當代의 지배적 자연관이나 종교적 견해에 따라 超自然的 產物이거나 自然物이라고 여겨졌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東國李相國集》 다음으로 오래된 기록은 世宗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록은 또 雷斧에 대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이기도 한데, 實錄에서는 雷斧에 대한 기록을 17세기까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實錄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록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15세기의 인물 李陞(1438-1498)

4) 관련 부분만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荊梁舊貢皆貢斧 禹時以石爲兵無 肅愼石罽盖仍禹 禹罽遂無傳中土 (중략)

大抵石斧並石鏃 尋常得於青海曲 斧乃似是異黼形 鏃若分明出魚腹

石性銳利當金剛 石紋作作暈古綠 有三百枚或充眞 充眞而已非作用 (후략)

의 《靑坡集》에 실린 〈靑坡劇談〉의 〈明驗〉항에 있는 글이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은 雷斧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실물을 보니 그 연유는 모르겠지만 노련한 匠人의 솜씨로 만든 물건이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생각은 東아시아에서는 類似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탁견이지만, 그가 고대했던 雷斧의 起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博物君子”는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⁵⁾

그런데 雷斧는 中國에서 唐代인 8세기부터 사용된 어휘이다. 이 말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돌도끼란 원래 천둥과 번개를 주재하던 神인 雷公, 즉 雷神이 천둥번개를 만들 때 썼던 도끼로서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여긴데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雷斧란 雷神이 霹靂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끼로서 雷公之斧 혹은 雷公石斧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雷斧는 詩文 등에서 일종의 比喻的 표현으로서도 사용되곤 했는데, 예를 들어 생김새가 너무나 정교해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음을 뜻할 때 그 솜씨가 鬼工雷斧로 만들었다고 하거나 혹은 벼락이 사물을 파괴함을 가리켜 雷斧가 내려쳤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모든 용례는 천둥번개와 벼락이란 天界의 雷公이 신비한 도구를 갖고 일으킨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雷斧의 語源보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山野에서 우연히 얻는 도끼를 雷神의 도끼인 雷斧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즉, 사람들

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明驗〉에 실린 또 다른 한 편의 글 역시 이 글 못지않게 흥미로운 내용으로서, 패륜아가 벼락 맞아 죽은 사정을 설명하며 孝의 가치관을 설파하고 있다.

星隕爲石 雷震而得石如刀如斧 其彫琢之功固非偶然而成 非經於良匠老手 不能成矣 天地造化之能 自然神妙迥出 人爲者乎 孰謂天上而有物自然如此者乎 凡天地間自生之物 如草木之花 非不巧妙也 然借陰陽之精 爲一時敷榮發華者矣 至於金玉土石 不借人力 則不能成巧 吾於雷斧雷劍竟莫其所以然者 以俟夫博物君子

은 그런 물건을 찾았을 때, 원래 지상에 없던 물건이지만 雷神이 천둥번개와 벼락을 만들다 땅에 떨어뜨려 體化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雷斧를 번역하며 〈雷神의 도끼〉라고 해도 좋지만, 자연의 전기현상인 천둥번개나 벼락과 관계되는 도끼라는 뜻에서 〈벼락도끼〉라고 부르는 것도 좋다고 여겨진다.

雷斧가 원래는 하늘의 雷公이란 神이 갖고 있던 물건인 만큼 무언가 특별한 效能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퍼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唐代 이래 모든 醫書에 雷斧가 진귀한 藥材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順產을 돕고, 神志를 맑게 하고, 僻邪의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淋疾〉, 즉 모든 泌尿器系 疾病에 主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唐末부터 宋元代가 되면 특히 中國 南部에서는 雷公을 섬기는迷信이 크게 확산되어, 그를 받들어 모시는 廟祠와 祭物에 財富을 탕진하는 일이 빈발한 듯하다. 雷神에 대한 이런 근거 없는 믿음과 사회현상은 朱子를 비롯한 性理學者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바, 迷信 타파를 위해서라도 雷斧가 무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아니면 안 되었다. 그로부터 雷斧란 神의 물건이 아니라 단지 氣의 순환에 따라 저절로 만들어진 自然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나타났다. 이러한 ‘合理的’ 설명은 後代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性理學을 國是로 삼은 朝鮮에서 性理學 大家들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雷斧가 雷神의 도끼로서 신비한 효능이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과 氣의 순환으로 만들어진 自然物이라는 두 갈래의 생각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졌다. 전해진 시점은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高麗 때일 것이다. 아무튼 남아 있는 기록을 보자면, 朝鮮 초에는 效能이 있는 신비한 물건으로서의 雷斧에 대해 관심이 깊었으나 朝鮮 중기부터는 이를 自然物로 다루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술했듯, 雷斧에 대한 첫 기록은 實錄에 나오는데, 世宗23年(1441) 5월 18日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實錄에는 이후 光海君14年(1622)에 이르기까지 약 180년 동안 모두 아홉 군데 기록이 나오지만, 이 첫 기록이야말로 가장 길고 또 중요하다. 그 내용은 《大典本草》라는 醫書가 雷斧의 효용을 말하고 있고 그 외 여러 문헌이 雷斧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朱子 역시 이것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바에서 알 수 있듯 雷斧가 진귀한 물건이니 이것을 찾도록 명을 내려 달라는 啓를 醫官이 올렸고, 왕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⁶⁾ 이 첫 기록은 3년 뒤에 雷斧類인 雷劔과 雷箭을 찾아 바친 이들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는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⁷⁾

雷斧와 世宗의 病勢에 대한 實錄의 기록과 雷斧의 효능에 대한 醫書의 내용을 검토하면, 醫官이 雷斧를 찾으라고 청한 것은 世宗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진다. 世宗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여러 업적을 남기던 40代에 들어와 〈淋疾〉로 인해 수시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病症과 관련된 기록에서 판단할 때, 世宗의 〈淋疾〉은 石淋, 즉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尿路結石이라고 판단되는데, 결국 醫官의 啓는 王의 치료를

6)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醫官啓 按大全本草 云 霹靂鍼 無毒 主大驚失心 恍惚不識人 并下淋 磨服 亦煮服 此物 伺候震處 掘地三尺得之 其形非一 亦有似斧刃者 亦有如剉刃者 亦有安二孔者 一用人間 石作也 因雷震後時多 似斧 色青黑斑文 至硬如玉 作枕除魔夢 辟不詳 筆談云 凡雷斧 多以銅鐵爲之 楔乃石耳 似斧以無孔 太平廣記云 每大雷雨後 多於野中 得霹靂石謂之雷公墨 扣之鎗然光瑩如漆 又於霹靂處 或土木中 得楔如斧者 謂之霹靂楔 小兒佩帶 皆辟驚邪 孕婦磨服爲 催生藥必驗 朱子曰 如雷斧之類 亦是氣聚而成者 但已有渣滓 更散不得 由是觀之 雷斧雷楔等物 其來久矣 乞令中外 廣行尋覓 從之

7) 實錄에는 世宗26年 3月26日과 5月28日의 기록으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林川人成弼得雷劔二 稷山人吐乙麼許升龍等各得雷箭一以進 賜成弼綿布六匹 吐乙麼許升龍各二匹

忠淸道舒川人得雷箭 洪主人得雷劔 以進 各賜絛布有差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음을 말해준다고 보인다.⁸⁾

世宗代의 기록을 포함해 15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관계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자연에서 발견되는 돌도끼나 돌칼, 돌화살촉, 돌창 등을 朝鮮에서도 雷斧, 雷楔, 霹靂鍼, 霹靂楔, 雷劍, 雷箭, 雷槍 등으로 불렀고, 이런 것들은 모두 氣가 굳어져 돌이 된 것이라고 여겼거나 혹은 藥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관련 자료는 雷斧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적어도 17세기까지는 상당히 높았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그 단적인 예로서 實錄에 나오는 雷斧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光海君 14年 7月9日의 기사를 들 수 있다. 즉, 새로 짓는 仁慶宮 中正門의 두 기둥과 작은 挾門에 벼락이 쳐 사람이 죽었다는 변고를 보고 받자, 光海君은 벼락 친 곳에서 雷斧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그 자리를 파서 雷斧를 찾아보라고 지시할 정도였다.⁹⁾ 그렇지만 16세기부터 性理學이 뿌리내리며 雷斧란 단지 자연적인 氣의 흐름에 따른 산물이라고 한 儒家의 해석이 보다 확고해지기 시작한 듯하다. 즉, 中宗24年(1529) 2月 20日 實錄에는 雷斧를 찾았다는 狀啓가 올라오자 中宗은 이 사실을 內醫院이 알면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게 할 것이니 물건을 올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¹⁰⁾ 이런 사정은 性理學이 자리를 잡으며 雷斧에 대한 性理學者들의 설명 역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듯한데, 實錄에서 光海君 이후 雷斧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8) 주 1)의 2003년 拙稿

9) 夜二更 暴雨大作 雷擊仁慶宮中正門兩柱及小挾門 工匠一人震死 [新宮工役未畢 有此變異 都人或觀因此停役 而王不以爲意 乃曰 古方云 雷擊處必有雷斧 淪埋土中 取之 可以辟邪也 仍令內官覓掘 不得]

10) 咸鏡道觀察使成世昌馳啓曰 咸興府今二月初六日初昏 西北有聲如雷 北青府 同日 南面 胡望浦 月將入時 有聲如雷 自西北邊而來百步許田中 有隕落之物於沙土雜亂處 如拳黑石一枚 陷入其中 其石塊上送云 傳曰 此石塊令內醫院見之 則必以爲뇌부之流云 故其石塊不下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런 사정은 18세기 이후 實學者들의 글에서 보다 잘 알 수 있다. 世宗實錄에 나오는 雷斧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도 朱子가 인용되지만, 이와 軌를 같이 하는 내용은 18世紀 중엽 편찬된 《星湖僊說》과 다시 이로부터 약 100년 뒤에 쓰인 《五洲衍文長箋散稿》의 〈雷斧〉라는 항목에 보이고 있다. 두 글은 기본적으로 雷斧란 氣가 뭉친 것이라는 宋元代 儒學者들이 설과한 바를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이다. 특히 《星湖僊說》은 雷는 火氣로서 火가 극에 이르면 土를 만들고 土는 다시 굳어져 돌이 되는 법이므로 벼락이 치면 雷斧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라며, 雷斧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¹¹⁾ 또 星湖나 五洲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18세기의 인물 黃胤錫도 10세부터 시작해 타계하기 이틀 전까지 54년 동안 작성한 일기 《頤齋亂藁》에서 雷斧가 만들어지는 이유와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性理學 대가들의 해석을 추중함으로써 雷斧의 본질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의식을 차단하는 면이 있는 바, 소위 ‘實事求是’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런데 理氣論에 따른 ‘合理的 說明’을 朝鮮의 지식인들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민간에 유포된 ‘迷信的 說明’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雷斧라는 神祕한 물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 사정은 18, 19세기 지식인들이 雷斧가 自然物임을 계속 강조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말해 주고 있다. 즉, 뗏속까지 性理學을 받아들인 朝鮮 後期の 지식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實事求是’를 내세운 이들은 醫書나 《太平廣記》와도 같은 각종

11) 蔡西山云人於雷所擊處收得雷斧 是氣擊後方始結成 不是將這箇來打物 見人拾得石斧如今斧之狀 似細黃石 此說是雷本是氣 寧復以石爲斧耶 如流星所墮亦必有石 人往往有得者 如春秋隕石是也 星流有光 分明是火氣 雷亦火氣 火極則生土 土結成石 其理然矣

12) 이런 내용은 1780年 6月17日자 일기에 있다. 주1)의 2005년 拙著 부록 10 참조.

雜書를 통해 雷斧에 대한 ‘迷信’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백성들이 惑世誣民하는 설명에 빠지지 않도록 雷斧의 연원을 ‘올바르게’ 설명함으로써 俗說을 불식시켜야 할 필요를 아마도 강하게 느꼈을 것이기에 雷斧를 辨證했을 것이다. 이후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開港 이전까지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開化하지 않은 지식인들에게 산과 들에서 발견되는 돌도끼나 돌칼은 그저 자연적으로 氣가 뭉쳐 만들어진 天地造化의 所產物에 불과했을 것이다.

3. 雷斧 관련 기록

1) 韻府群玉

전술하였듯, 여기서 소개하는 자료들은 거의 모두 매우 단편적이거나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 기존에 소개한 대부분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아래 열거할 자료들도 雷斧에 대한 단순한 언급 내지 그에 대한 인용문, 雷斧의 기원에 대한 설명, 雷斧 발견 사실 및 詩文 속에서의 은유적 표현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本稿의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자료는 世宗19년(1437) 6월에 간행된 《韻府群玉》의 〈雷〉 항이다. 《韻府群玉》은 〈雷〉를 풀이하며 〈魯回切本作雷〉라 하였는데, 이어 《夢溪筆談》과 《國史補》를 인용해 두 句節이 계속된다. 이 두 句節 인용문의 의미와 出典에 대해서는 2001년의 拙稿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筆談 斧以銅鐵爲之 霹靂楔乃石尔 似斧無孔 擊物後人亟尋之可得
國史補 州人取食口如

《韻府群玉》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이 발간된 시점 때문이다. 즉, 앞에서 世宗에게 雷斧가 신묘한 물건이니 이를 널리 찾도록 해달라고 醫官이 啓를 올린 것이 世宗23年이라 했는데, 《韻府群玉》은 이보다 4년 전인 世宗19年(1437) 6월에 간행되었다. 그렇다면 醫官이 雷斧에 대한 啓를 올릴 무렵이면 宋代에 발간된 《夢溪筆談》의 내용뿐만 아니라 唐末의 저술이라고 알려진 《嶺表錄異》나 《國事補》에 실려 있는 설명, 즉 雷州에는 雷가 많으며 사람들이 돼지같이 생긴 雷公을 겨울에 땅속에서 잡아 꺼내어 먹는다는 식의 雷와 雷斧, 雷公 등에 대한 설명이 朝鮮에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醫書나 性理學 大家들의 雷斧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雜書에서 말하는 雷斧에 대한 여러 俗說은 朝鮮初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 아닌가 여겨진다.

이 《韻府群玉》을 제외한 雷斧에 대한 자료들은 주로 文集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시대별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2) 李萬敷(1664~1732)

李萬敷의 《息山集》은 1813년 간행되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많은 글이 포함되지 않았다. 文集에 포함되지 않은 筆寫本 典籍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89호로 지정되었는데, 그중 1704년에 저술한 4冊의 《志書》 第二冊에는 〈雷斧星精〉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그 내용은 별이나 자연의 전기현상에 대한 宋元代 이래 여러 性理學者들의 설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벼락이나 별은 기본적으로 氣로서 그 형상은 원래 없는 것이지만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가까이 오에 따라 氣가 응결하며 물건이 된 것이라고 雷斧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雷斧星精〉

雷電之過及星隕處 惑有物如石非石 世謂之雷斧星精 夫雷與星 有氣而無質 何以隕有形之物也 盖雷與星氣激則隕 初則只是氣 而近地則凝 在天成象 在地成形 故各從其類也

3) 洪良浩(1724~1802)

英正祖代의 고위 관료였던 洪良浩의 文集《耳溪集》第17卷에는 〈雷斧銘〉이라 題한 銘文이 실려 있다. 그가 이 글을 언제, 왜 썼는지 말해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가 燕京을 두 차례 다녀오며 考證學 大家들과 교류했고 이를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힘썼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글의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마치 秋史가 石磬詩를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혹시 우연히 雷斧를 접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雷斧銘〉

大塊之聲 其名爲雷
起自地底 鳴于天隈
隱隱其轉 兢兢其來
乘陽而奮 應律而回
一聲初發 百昌齊開
蟄蟲皆驚 響振九垓
仁遷而碎 山觸而摧
勾萌甲坼 仙禽胚胎
神斤飛火 鄧林揚灰
聖人垂象 如仰盂盃
長子乘乾 御雲徘徊

不喪匕鬯 肅清靈臺

4) 李定稷(1841~1910)

李定稷은 黃玹 등과 더불어 조선 말 호남의 대표적 유학자로서, 28살이던 高宗5年(1868) 燕行使로 北京에서 1년 동안 체류하며 西洋文物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1923년 간행된 그의 遺著 중에는 4冊으로 구성된 《蘇詩註選》이 있는데, 그중 第二冊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가 읊긴 蘇軾의 원문은 唐末 이후 雷斧가 雷州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世間에 널리 퍼졌음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雷州 大雷雨時 人有收得雷斧雷椎 皆石也

5) 尹奉吉(1908~1932)

尹奉吉義士의 유품 중에서 보물 568-23호로 지정된 玉唾, 漢詩集, 郇雲大篇, 濂洛, 壬椎, 笏記, 鳴椎 및 明心寶鑑 각 1冊 중, 漢詩集(보물 568-23-2호)은 세로 23.5cm×가로 19.6cm의 29장으로 이루어진 필사본이다. 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여러 수의 漢詩가 실려 있으며, 그 사이에는 〈宜寧南車熙冠禮序〉, 〈贈趙昌行加冠序〉, 〈贈李友帽書〉, 〈蒙山別業〉, 〈戊戌大呂上澣姜致憲序〉 등의 글이 있다. 漢詩 중에는 2004년의 拙著에 소개한 茶山의 〈蟲食松〉을 연상시키는 〈松蟲〉이라는 七言絶句가 실려 있다.

〈松虫〉

虫放頑陰易過冬 蠢同蝗類貪無足
 山林貽害又今逢 螿甚蜂群罪不容
 天罰那遲飢食櫛 終知此物初*非久
 地靈難耐處侵松 風雨盡驅雷斧攻

(*初자는 應자일 수 있음)

4. 淋疾 관련 기록

앞에서 서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의 拙稿에서는 世宗實錄에 雷斧에 대한 기록이 길게 나오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던 것은 世宗이 淋疾 중에서도 石淋, 즉 尿路結石으로 여러 해 동안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治療劑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하였다. 尿路結石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바, 實錄에서는 石淋(혹은 淋疾)을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록을 더러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世宗 이전의 인물인 權近은 太宗6年(1406) 淋疾로 참기 어려운 고통에 수시로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는 辭職上訴를 5월 1日과 13日 두 차례 올렸으며,¹³⁾ 또 端宗1年(1453) 9월 11日에는 黃海道觀察使 李畜도 石淋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발 물러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辭職上疏를 올렸다.¹⁴⁾ 그런가 하면, 成宗과 肅宗도 石淋으로 고생했을 가능성도 實錄에서는 엿볼 수 있으며, 뒤에 보듯 淋疾로 오줌을 누지 못하게 된 아비를 살려낸 효자들의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13) 伍月 庚寅朔 權近上箋辭職 箋曰 (중략) 淋疾尤劇 頻數不止 通塞無常 酸痛難忍 壬寅 權近復上書辭職起復 書略曰 (중략) 且臣疾篤 淋發非常 一飯之項 尙且再起 終夕便旋 不得暫寧 權近的 笏子는 陽村集에도 전문이 실려 있다.

14) 黃海道觀察使李畜上書辭職曰 (중략) 今又得石淋濱死

이러한 淋疾과 관련된 實錄의 기사와 유사한 내용은 기타 公文書나 文集에서도 단편적으로 찾을 수 있다.

淋疾에 대한 기록이 雷斧에 대한 과거 사람들의 인식을 직접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雷斧가 淋疾의 治療 藥材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바를 감안한다면 雷斧의 의미를 이해함에 필요한 일종의 배경적 지식을 줄 것이라 생각해,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기록으로 남은 淋疾의 사례들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病症이 자세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石淋, 즉 尿路結石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사례도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 기록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겠다. 기록의 내용은 대체로 淋疾을 앓고 있는 상황 내지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다.¹⁵⁾

1) 洪彦弼(1476~1549)

中宗39年(1544) 1月27日 左議政 洪彦弼이 올린 啓는 위에서 살핀 權近

15) 한편, 주 1)의 2003년 拙稿에서 언급했듯, 膏淋, 즉 尿道炎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節要》第25卷 忠肅王條에 〈黃氏 邀前王宴其家 王命醫僧福山 治黃氏淋疾 王 常餌熱藥 所幸婦人多有是疾〉이라는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高麗末의 王인 忠惠王도 이 병을 갖고 있었던 것임은 《東史綱目》第14卷上的 後三年(1342) 기록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春二月 冊洪氏 爲和妃 封宮人林氏 爲銀川翁主 (중략) 王好熱藥 諸妃嬪 不能當御 多得淋疾 惟翁主得幸〉라는 내용이 있다.

또 1897년 간행된 朝鮮 중기 인물 高尚顏(1553-1623)의 문집 《泰村集》제5권 〈效嘸雜記下〉에 실린 洪麟祥이 1594~5년 嶺南觀察使로 安東에 머물 때 膏淋에 걸렸다는 내용의 〈洪履祥患膏淋證〉라는 다음의 글이 있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처럼 膏淋은鬱함이 오래 되어 생기니 泄精을 해야 치료할 수 있다는 醫院의 處方은 아마도 抗生劑 등장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 거의 유일한 對症療法이었을 것이다.

洪參判君瑞 初名麟祥 後避逆賊名 改麟爲履 字曰元禮 甲吾乙未年間 爲嶺南方伯 留駐安東 一日患膏淋證 審藥曰 此乃久鬱所致 非洩之不可 請乘昏選妓薦枕焉 元禮有難色 依違答之 黃昏復請之 默然良久曰 姑舍是 夫人明日自榮川到此府 蓋不欲爲微恙壞貞操也 聞者笑其執拗

의 筍子和 유사한 내용인데, 實錄에 실려 있는 내용은 《默齋先生文集》 《附錄第二卷》에도 있다. 啓에서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으며, 그 전해에 중병을 앓고 아직 낫지 않았을 뿐더러 몸이 위쪽은 熱하고 아래쪽은 冷해 淋疾이 생긴 지 오래이나 아직 차도가 없으며, 기력도 쇠하고 병도 점차 깊어지고 있으니 자신을 遞直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글에서는 權近의 증상과 같은 묘사가 없어 그의 淋疾이 石淋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혹시 오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오줌을 눈 다음에도 늘 미진하게 남아있는 氣淋, 즉 前立腺 肥大症일 가능성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臣有私故 欲啓者久 惶恐未敢 臣自廢朝 遭大患難 [遭時禍謫珍島] 自少多病 又前年重病纏身 雖受由針灸服藥 亦未見效 一身之間 上熱下冷 或發淋疾 久未得差 國事每推於同官 又仕進之地稍遠 則亦不能往 心常未安 近來氣力衰憊 病漸繁重 決不能堪 請遞臣職

2) 鄭百朋(1484~?)

明宗實錄 卽位年(1545) 11月28日의 기록에도 淋疾을 핑계로 사직을 원하는 鄭百朋의 啓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허리 아래가 寒濕해 淋疾이 극심하니 知中樞府事 직이 비록 바쁘고 중요한 자리는 아니나 앉아 있기 미안하니 물러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의 淋疾이 石淋인지 여부는 洪彦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다.

前者奸臣[尹任 柳灌 柳仁淑 瑠 李輝李德應] 謀亂之時 臣之同生順朋啓之 臣在一家 豈不聞知 始聞其變 臣子之情 不勝痛憤 卽當與順朋同啓矣 小臣衰病已久 其時尤劇 寸步不能自致 未及來啓 臣在宰相之列 常爲惶恐 不意以子之功 蔭

及小臣 特加正憲 [百朋無子 乃以順朋之子礪爲後 礪功臣也] 天恩罔極 措身無地
小臣今則病間 不得不謝恩 然腰下寒濕 淋疾又劇 知事之職 雖不繁重 在職未安
敢啓

3) 李埈(1560~1635)

李埈이 지은 두 편의 詩文인 〈丹陽石門〉과 無題詩는 2004년 拙著에서 雷斧라는 어휘를 은유적으로 사용한 문학작품의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蒼石先生文集》 第9卷과 11卷에 실린 〈與張旅軒顯光〉 및 〈與鄉中諸友〉라는 글에서 자신의 淋疾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래 두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그는 老年에 소변이 여러 날 잘 나오지 않는 淋閉之疾 혹은 淋澁之患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극심한 酸痛에 시달렸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石淋이 아닌 氣淋으로 소변보기가 어려워 고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여겨진다.

〈與張旅軒顯光〉

念昔屏下之拜 今幾稔乎 中因仕務 襄疾之甚 雖未得再遂登門之願 而若其馳情於墻仞 則無片時之暫輟也 頃日柳季華轉致台意 有洛濱一棹相聚之教 茲豈非造物者之畀碩遇也 而偶苦淋閉之疾 沈綿累日 未得追躡英游於湖山縹氣之畔 病伏卑湫 徒有九萬搏風之慕也 (후략)

〈與鄉中諸友〉

久旱而仍澇 陰陽愆伏無常 不惟年事不順 人之氣候亦易於傷感 卽日 僉動靜若何 鄙生臂痛方苦 而又有漩溺淋澁之患 苦苦度日 (후략)

4) 朴綱(1583~1640)

宣祖에서 仁祖에 걸친 朝鮮 中期의 文人 朴綱의 문집 《无悶堂先生文集》〈卷之二 書〉에는 친우 趙致遠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 안부를 전하고 묻는 내용 중에는 새해 초부터 동생이 다시 淋疾로 고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병이 새해 들어 다시 시작되었으며 먹지 못하고 토해 여러 번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尿路結石의 전형적 증상이다. 淋疾과 관련된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與趙致遠〉

(전략) 弟自歲初淋疾復發 而病勢變換 證候不齊 因致脾胃傷敗 臨食嘔逆 以至于今 尙未吞數合之食 日漸綿劇 一朝溘然 恐不得再見故人顔面也 (후략)

5) 蔡得沂(1605~1646)

蔡得沂는 仁祖21年 2月 瀋陽으로 가 丙子胡亂 때 볼모로 잡혀간 昭顯世子를 이듬해 1월 漢陽으로 모시고 온 신하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醫術에 조예가 깊었던 듯한데, 承政院日記의 여러 곳에서 御醫와 더불어 仁祖를 진찰하고 치료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仁祖는 그가 瀋陽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인 1月24日 御醫가 올린 글을 받아보고는 그 罪를 다스린 다음 瀋陽으로 보내라고 명하였으며, 瀋陽에서 돌아온 다음 해 4月8日에도 그를 拿推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아래 인용한 承政院日記 第5冊 仁祖 22年(1644) 4月20日의 기록에 따르면, 王命을 받아 그를 조사한 義禁府는 그가 배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淋疾이 심해 잘 걷지도 못할 정도이므로 병이 낫기를 기다린 다음 조사하기를 바라

는 틱을 올렸고, 왕은 그리 하라고 하였다. 당시 그가 만39살의 나이였음을 고려하고 배가 부른 것이 泌尿器系 疾患 때문이었다면 그는 尿路結石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을 것이다. 그는 2년 뒤에 사망하였다.

又啓曰 本府月令尹漫手本內 罪人蔡得沂重得淋疾 腹脹不得行步云 依例待差 捧招之意 敢啓. 傳曰 知道. (禁府臚錄)

6) 日省錄(正祖7年[1783] 6月5日) 및 審理錄

肅宗代의 洪萬選(1643~1715)이 남긴 《山林經濟》 제1권의 〈攝生〉편 〈省嗜慾〉과 〈保身體〉 두 항에는 中國의 養生書인 《修養叢書》를 인용해 淋疾은 오줌을 참거나 오줌을 참은 상태에서 방사를 할 때 생긴다는 설명이 있다. 또 제2권 〈治膳〉편 〈食忌〉 항에서는 明宗9年(1554) 魚叔權이 편찬한 類書인 《攷事撮要》를 인용해 복숭아를 먹고 목욕을 하면 생긴다고 하였다.¹⁶⁾

그런데 《山林經濟》에서 《修養叢書》를 인용한 淋疾에 대한 설명, 즉 소변을 참으면 생기는 병이라는 설명과 동일한 맥락의 기록은 뜻밖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正祖7年(1783) 癸卯年에 鎭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처리 전말을 다룬 6月 5日 日省錄에 실린 〈判下秋曹 湖西殺獄案 覆啓〉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洪忠道 鎭川縣에 거주하는 金戊得, 金甲伊가 사람을 죽인 사건과 그 처분에 대한 내용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원래 《審理錄》 第十卷에 癸卯年(1783)의 기록으로

16) 주 1)의 2003년 拙稿 주 34) 참조. 그 原文은 각각 다음과 같다

忍小便入房得淋疾

忍小便則成伍淋

食桃後入浴成淋疾

〈洪忠道鎮川縣 金戊得 金甲伊獄 蹴踢朴先芻 翌日致死 實因初檢被蹴 覆檢被踢〉라는 題下에 있다.

(전략) 成獄之後始曰 本有淋疾 或曰小便不通 以爲疑亂獄情之計者 情狀尤極 巧惡 依回啓施行

7) 崔漢綺(1803~1877)

19세기의 奇人으로 꼽히는 崔漢綺는 1836년에 《推測錄》과 《神氣通》으로 구성된 《氣測體義》을 저술하였다. 《推測錄》 제6권 〈推物測事〉 편에 실린 〈人物氣結成石〉라는 글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서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 돌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사람이나 동물 몸에서 돌이 만들어지는 ‘신비한’ 현상은 분명 호기심을 자아내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性理學으로 무장한 지식인에게 氣가 凝結해 생겼을 것 이상의 다른 이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인바, 그 역시 石淋이란 氣가 結聚해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人物氣結成石〉

物之精氣 凝結成石 人之心靈 專一成堅

外紀云 渤海島 有獸似鹿 名把雜爾 腹中有石 能療百疾 凡獸腹中之石子 曰鮐答 且魚蟹骨體 往往有白石 又有人患石淋 皆氣結而成者也 程氏遺書 載有波斯人 發閩中古塚 棺內俱盡 惟心堅如石 鋸開 有山水畫女凭欄 蓋其注意所結如此 宋潛溪文集 臨川浮屠 寂後火焚 惟心不化 出五色光 有佛像 非骨非石 此皆志局不分 精靈氣液 因感凝形

8) 筆苑雜記, 清江先生笑叢 및 海上錄

淋疾이 흔한 질병인 만큼, 사람들 사이에는 병의 원인이나 증상 혹은 그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떠돌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李圭景(1788~1863)의 《五洲衍文長箋散稿》〈人事篇 技藝類 醫藥〉항에는 〈病異醫異辨證說〉에 있는 《因樹屋書影》에서 발췌한 〈山畢公服臘臍臍久之得沙淋疾 皆作犬形〉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는 石淋 내지 沙淋을 더욱 신비한 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 치료제로서, 燕山君 5年(1499) 간행되어 中宗 18年(1523) 개간된 《救急易解方》이나 宣祖代 출간된 《醫林撮要》나 《東醫寶鑑》에는 石葦散, 五淋散, 五苓散, 導赤圓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또 《醫林撮要》는 明의 呂復을 歷代 名醫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淋疾 치료와 관련해 〈乃以琥珀滑石石膏黃柏之劑清之 繼以龍腦辰砂末檉柿蘂 食方寸匕 卽愈〉라 하고 있다.

이러한 醫書 이외에도, 《山林經濟》는 淋疾이 생기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第4卷 〈治藥〉 항은 각각 《醫學入門》, 《證類本草》와 《修養叢書》를 인용해 石膏, 焯石 및 石首魚가 淋疾의 치료약재라고 하고 있다.¹⁷⁾ 그런가 하면 《熱河日記》중 〈金蓼小抄〉의 〈金蓼小抄序〉는 《遊宦紀聞》에 있는 程沙隨란 이에 대한 기록을 인용하며 〈又沙隨 常患淋 日食白東苳三大甌而愈〉라고 하였다.

난처하기 짝이 없는 疾病인 淋疾 그 자체에 대한 이러한 의학적 설명이나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시중에는 이와 관련된 우습거나 난감한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을 것임도 짐작할 만하다. 그런 사례로는 《筆苑雜記》와 《大東野乘》에 수록된 이야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徐居正(1420~1488)이 1487년에 지은 《筆苑雜記》 제2권에는 趙氏 성

17) 이런 생각은 예로부터 中國 醫書에서 전해 내려왔다. 주 1)의 2003년 拙稿 주 35) 참조.

의 어느 70 노인과 결혼하기로 한 젊은 과부 申氏가 혼인날 저녁 趙氏가 갑자기 淋疾에 걸려 廁間을 거둬 출입하는 등의 노쇠한 모습을 보고 破婚한 사건 전후의 사연이 실려 있다. 또 《大東野乘》 第57卷에는 李濟臣(1536~1583)의 《清江磨語》에서 옮긴 〈清江先生鯁鯿瑣語〉 중의 〈清江先生笑叢〉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 이 우스개이야기는 李仁弘이라는 이가 부인을 끄적여 여기는 元鷄라는 동무를 골리려고 石淋을 심하게 앓는 친척에게 거짓 처방을 해주어 그에게 매달리게끔 해 포복절도할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그런가 하면 壬辰倭亂 당시 日本에서 2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던 鄭希得이 1613년에 쓴 《海上錄》 제1권의 1598年 3月 24日字 기록에는 그의 대화 상대였던 僧侶가 淋疾을 앓고 있음을 말하는 구절이 나온다.

《筆苑雜記 卷之二》

有士族申氏女新寡 勳臣姓趙者 年踰七十求婚 申首鼠不決 趙有侄子爲駙馬新貴者 遣人解申曰 古人云 朝聞道夕死可也 今君朝爲宰相妻 暮爲寡婦 亦不害爲令名 申稍識文理然之

及婚夕 趙忽發淋疾 如廁者再 重以喘疾 申於窓隙 覘其衰老遁去 明日訴于臺 臺官劾趙以勳相 强娶士族 失朝廷體 趙曰 申初聞朝聞道夕死之語許之 非强娶也 臺官劾申 申曰 駙馬儘有是語 妾初聞之 謂婦人守節不二 寧有意以大聖人之言爲奪節乎 臺官直申而非趙 趙落職

明年申適一老樞 物議紛然

〈清江先生笑叢〉

習讀元鷄 其聘家在門外 夕陽必攝衣忙去 或路問何之 則必曰 西風冷吹 屋上生霜 如羹瘡弱妻 是可捨歟 羹瘡方言瘳也 蓋形容其後脚不伸 常有依接之體也 同儕戲元 必以羹瘡爲餌

一日李上舍仁弘 有鄉族患淋求藥 李戲曰 吾友得一羹瘡 此乃治淋聖藥 溺道不

通 小容臍下乳 塗其水 卽快然 此人常患是症 生畜以供藥物 故自儼難得之寶 匿不示人 況見借乎 君病雖重 借用甚難 誠可憫哉

其族坐臥極請曰 唯威活我 李裁了元書 乃付其族 書中不言借瘡 而使自哀乞曰 彼切已用 子言借瘡 必發怒色 須懇求乃可

其人親見元公 傳簡仍拜曰 僕下疳多疾 素患淋瀝 始膏而血 至沙而石者屢矣 今又重發 殆將死也 伏聞貴宅生畜麝瘡 臍下之水最爲神效云 請小借用 元色勃然大怒 投書於地曰 何物李某 謂余有麝瘡乎

其人已認怒之說 故再三懇要曰 生死至重 請用後還納 千萬毋慮 元尤憤罵 手足並動 其人又伏地頓首上手曰 尊公仁德 不欲人命生生乎 願借願借 元曰 汝雖百死寧出吾瘡耶 命童曳出 觀者成堵

其人悵然 不以曳辱爲恨而猶以未借爲歎 歸報李公 纔入其門而笑已折腰矣

《海上錄》

書示玄蘇曰 遲滯到此 春序將盡 戀親懷土之情 豈可以毫墨形容哉 島主之還定在何時 近聞多有自京下來之船 其無我等處置之白乎 如有自此上京之船 爲將我等冤鬱之情 陳于島主而快放籠裏之禽 俾得渡海如何 每如是懇懇於禪窓者 可以文墨通情故也 幸曲照

玄蘇答示曰 余苦淋疾 有日于茲 故先刻過醫家診脉 歸來見惠書 一一寔所不讓也 島主自京寄書於留鎮輩 今月十日出京云 則歸島不可有日 請安懷待之 必以惠書傳留鎮之輩 重達渠之言於貴聽 余亦倦待朝鮮使節 老懷不言可知也 時醫來候疾 是以不能屢陳 伏乞恕宥 頓首不宣 季春念五日 遺嗅老衲玄蘇謹白

9) 吮淋 관련 기록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변이 막혔을 경우 그에 대처하는 원시적이지만 즉각적인 방법은 오줌을 입으로 빨아내는 소위 〈吮淋〉을 하는 것이겠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로써 아비를 살려낸 것은 龜鑑이 되는 큰 孝行이기 때문

에, 實錄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예를 들어, 中宗實錄에는 임질에 걸린 늙은 아버지가 갑자기 혼절하거나 위독한 상황에 빠지자 陰莖을 입으로 빨아 소변을 통하게 해 살려낸 孝子에 대한 이야기가 네 차례 나온다.¹⁸⁾

그러한 孝行은 實錄 이외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中宗25年(1530)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第16卷 〈忠清道 永同縣 孝子〉 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蔡亨溫 年十一 母以父所棄 家貧 拾橡實 以供朝夕 母死 稱貸以葬 父嘗患淋疾 吮之乃癒 及歿廬墓 啜粥三年 今上十三年旌門

마찬가지로, 宋時烈(1607~1689)의 글을 집대성한 《宋子大全》 제188권에 실린 宋希命(1572~1656) 墓誌는 그가 아버지인 宋樺壽가 淋疾로 심하게 고통을 받자 오줌을 입으로 빨아낸 孝子라고 다음과 같이 칭송하고 있다.

(전략) 考將仕郎諱樺壽 (중략) 事將仕公 竭其心力 將仕公嘗患淋疾 肉甚痛 公嘗吮之 (후략)

18) 주 1)의 2003년 拙稿 참조.

中宗7年 5月 壬子

先是 上教諭中外曰 本朝忠臣孝子烈婦事績未及圖寫者 (중략) 全羅道觀察使南袞啓 (중략) 興德縣鄉吏陳侃之父 得淋疾濱死 侃涕泣親吮 其痛遂愈

12年 1月 丁丑

全羅道觀察使南袞狀啓 (중략) 興德縣吏陳侃之父季山 得淋疾危篤 侃晝夜號哭吮之 病遂愈 21年 7月 甲申

全羅道觀察使柳灌狀啓曰 (중략) 長城縣丹巖驛吏車舜年 (중략) 其父仁甫得淋疾 便澁不通 氣絕 舜年(중략) 吮其陽莖二日 水道自開 小便通下 乃得復甦

27年 7月 壬子

傳曰 (중략) 前直長金礪成 槐山人也 (중략) 其父得淋疾氣絕 吮淋得愈

이 글의 내용은 《四友堂先生集》 중 《卷之三 行狀》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淋疾에 걸린 것은 萬曆33年(1605)으로서 오줌이 막혔을 때 입으로 빨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그리 했다는 것이다. 즉,

公諱希命字子順 姓宋氏 系出恩津 (중략) 考諱樺壽將仕郎 贈兵曹參判 (중략) 萬曆三十三年乙巳 參判公患淋疾 不通小便 症勢危篤 公心憂腸焦 夜不脫衣冠 藥餌之物 親自營辦 而竭誠醫治 以冀收效 人云吮腎乃效 公即吮之 又嘗糞甜苦 以試病之緊歇 (후략)

尿道閉塞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입으로 빨아 오줌을 통하게 해 아버지를 살렸음을 말하는 이런 사례들은 모두 孝라는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朝鮮 中期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의 사정을 기록한 邑誌에서도 이러한 칭송받아 마땅한 孝子와 孝行을 기록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槐山郡邑誌》

金礪成父 得淋疾至於氣絕 公吮淋 出毒石四箇 卽愈

《燕岐邑誌》

本朝洪信民 事親至誠父母 有疾必嘗糞以試苦歇 父患淋疾 吮頭溺道通

《靈光邑誌》

金致宗致元致得三兄弟 父病淋疾 遞吮七朔 又嘗糞及喪廬墓除役

《青陽邑誌》

李五壯 其父嘗患淋疾 吮之而生 又其母病欲氣絕 斷指注血以延七日之命 顯宗

朝事 聞論賞

위 邑誌에 실린 孝行의 사례에서 槐山郡 金礪成의 효행은 주 18)의 中宗實錄 기록으로도 실려 있지만, 槐山郡邑誌는 보다 자세하게 돌을 4개나 뺐었다고 적고 있어 그 아버가 尿路結石을 앓았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靈光邑誌 기록의 경우에는 3형제가 차례로 돌아가며 吮하기를 무려 七朔 동안이나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혹시 尿路結石이라기보다 前立腺肥大症으로 고생했던 사례는 아닌지 모르겠다.

5. 맺음말

거듭 말하지만, 이상의 자료들이 考古資料에 대한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알려지지 않은 바를 말해주는 내용은 아니다. 이 글은 단지 그러한 인식과 관련될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들을 모아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발표한 몇몇 줄고에서 지적하였듯, 〈natural philosophy〉 내지 〈natural history〉의 전통과 거리가 먼 朝鮮時代 사람들에게 돌도끼란 하늘에서 떨어진 귀한 약재 아니면 벼락이 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물건이었을 뿐이다. 淸을 통해 西洋文物을 접했던 17세기 이후의 朝鮮 지식인들도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심지어 20세기에 들어서도 考古學이라는 近代學問을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先史時代란 생소하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개념이었으니, 1930년대 들어 《開闢》과 같은 雜誌에는 고인돌의 정체를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글이 발표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靑銅器時代의 무덤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